

남북으로 길게 뻗은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 왓카나이. 최북단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듯이 이곳은 같은 홋카이도의 중심지 삿포로에서도 차로 약 6시간을 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일본 본도 최북단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소야미사키 꽃과 러시아 사할린과의 거리는 불과 43km 밖에 되지 않아 날씨가 맑은 날에는 사할린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왓카나이를 둘러보다 보면 러시아어로 쓰여진 교통표지와 가게 간판 등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또한 사할린을 비롯한 러시아와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왓카나이의 이모저모 】

◇ 왓카나이시(稚内市)의 개요



- 면적: 760.89km²
- 인구: 38,857 명(2010년)
- 주요산업: 전후 북양어업기지로 어업이 활발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후에는 다소 쇠퇴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어업과 수산가공이 주력산업. 또한 일본 본도 최북단이라는 이점을 살린 관광산업과 낙농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기후: 연평균기는 7도로 겨울은 바다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온난하지만, 여름은 한류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낮게 느껴집니다.

< 왓카나이의 국제교류 현황 >

- 러시아 사할린 네베리스크시 - 1972년 9월 8일 (우호도시 제휴)
- 러시아 사할린 코르사코프시 - 1991년 7월 2일 (우호도시 제휴)
-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 2001년 9월 9일 (우호도시 제휴)
- 필리핀 바기오시 - 1973년 3월 20일 (자매도시 제휴)
- 사할린 코르사코프시 - 1992년 9월 8일 (우호항만 제휴)
- 미국 앵커리지항 - 1982년 7월 27일 (자매항만 제휴)

왓카나이는 아이누어로 '차가운 식수 계곡'이라는 의미의 '아무 왓카 나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에도시대 초기 이후 항만이라는 지리적 조건에 양질의 어장을 갖춘 어업 마을로 발전하기 시작한 왓카나이는 에도시대 중기부터는 국방상의 북쪽 요충지로 중시되었습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현재의 사할린 항로를 개설하고 다이쇼시대에는 철도 건설이 이루어져 아사히카와(旭川) 이북의 최대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어업과 낙농이 활발한 왓카나이는 오호츠크해와 동해에서 수확되는 성게, 가리비, 다시마, 게 등의 해산물과 광대한 목장에서 생산되는 왓카나이우유, 소야쿠로규(宗谷黒牛) 등의 맛있는 먹거리도 다양한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해 줍니다.



소야미사키 꽃의 북위 45도 31분 22초에 위치한 일본 본도 최북단 기념비. 이곳에서 러시아 사할린까지의 거리가 불과 43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념비는 왓카나이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곳을 목적으로 왓카나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며 최북단에 왔다는 증거의 기념사진 촬영은 필수입니다.

아이누어로 '꽃이 티처럼 들쭉날쭉한 곳',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란 의미가 있는 노삿푸미사키 꽃은 석양이 아름다운 경승지로 유명합니다. 저멀리 왼쪽 저편으로는 리시리의 상징인 리시리 후지산이 보이며, 주변에는 천체관측이 가능한 청소년 과학관과 한류수족관도 위치해 있습니다.

왓카나이 즐겨보기!

·왓카나이 미나토난큐(港南極) 축제



올해로 제 50 회회를 맞이하는 축제로 매년 8월 7-8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물산전과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며, 축제의 대단원의 막을 2500발의 불꽃이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전국 개설매 왓카나이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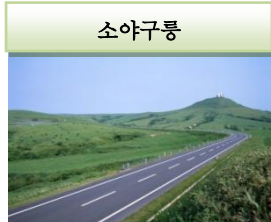


영화 '남극이야기'에 출연한 개 타로와 지로가 왓카나이에선 물된 것을 계

기로 1984년 제 1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겨울 일본 전국 각지에서 개설매 애호가들이 모이는 이 대회는 사람과 개가 하나가 되어 펼치는 특별한 레이스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강풍과 거친 파도를 막기 위해 전체길이 427m의 세계에서 보기 드문 반아치형 돔. 원형기둥 70개의 고식건축을 모방한 중후한 디자인으로 홋카이도 유산이기도 합니다.



소야미사키 꽃 뒤편의 완만한 구릉지대로 홋카이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릉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소야미사키 목장이 펼쳐져 있으며 57기의 풍차가 장관을 이룹니다.



빙설의 문



기원탑

이국이 된 가라후토(사할린)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곳에서 숨진 영혼을 달래기 위해 1963년에 세워졌습니다.

1983년 사할린 앞바다에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이 일어난 이후,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세운 탑.

< 왓카나이 관광협회 (일본어) >

<http://www.welcome.wakkanai.hokkaido.jp/>



홋카이도 신궁(神宮)

홋카이도 개척 당시인 1869년 9월 1일 메이지 천황의 명으로 홋카이도의 수호신과 개척신을 모시고 제를 올린 것이 홋카이도 신궁의 시작입니다. 이후 2대 개척장관인 히가시쿠제 미치토미(東久世通禰)가 도쿄의 진기칸(神祇官-제례를 관장하는 관청)에 개척 3신의 신물을 봉대하고 홋카이도 하코다테로 모셔왔으며, 그것을 개척관관이 다시 삿포로로 옮겨 왔습니다.

1870년 5월 임시 신전을 기타 5조 히가시 1초메(北5条東1丁目)에 세우고, 다음해인 1871년 5월 '삿포로신사(札幌神社)'로 이름짓고 같은해 9월에 현재의 위치인 마루야마산 지역으로 진좌했습니다. 1964년에는 메이지 천황을 제신으로 추가하고 이름도 '홋카이도 신궁'로 개칭하여 홋카이도의 총수호 신사로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배 전에는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의미로 양손을 씻고 입을 헹구고 신전에 들어가세요.



입구에서부터 신전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뱃나무 약 1400그루가 심어져 있어 삿포로 뱃나무의 명소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참배 시에는 헌금을 넣고 2회 인사->2회 박수->1회 인사 순으로 참배를 하시면 됩니다.



신사에서는 일본의 결혼식 중 하나인 신전시키(神前式)가 열리기도 하는데, 아주 조용하고 경건하게 적은 하객 안에서 식이 거행됩니다.

후세에게 전해줄 보물

홋카이도 유산

그 여섯번째 이야기

아바시리(網走) 지역

왓카 / 고시미즈 원생화원

- 기타미시(北見市), 고시미즈초(小清水町)

왓카 원생화원은 '용궁가도'라 불리는 일본 최대의 해안초원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300종류 이상의 식물들이 그 모습을 자랑합니다.



고시미즈 원생화원은 도후쓰 호수를 따라 피는 붓꽃 군락과 방목되는 말떼들이 경관을 이룹니다.

유빙과 가린코호 - 몬베쓰시(紋別市)

쇄빙선인 가린코호를 타고 겨울의 오호츠크 연안에 밀려오는 유빙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삼림철도 증기기관차 '아마미야(雨宮) 2호'

- 엔가루초(遠軽町)

도쿄의 아마미야제작소에서 제조된 첫번째 11톤 기관차로 현재 홋카이도 내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보존되는 유일한 기관차입니다.



오호츠크 연안의 고대 유적들

- 아바시리 지역(網走地域)

조몬(縄文), 오호츠크 문화, 아이누 문화에 이르는 각 시대의 유적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유적은 사할린과 시베리아 등의 대륙문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피어슨 기념관 - 기타미시(北見市)

1914년에 지어진 미국 선교사 피어슨 부부의 사저로, 부부는 홋카이도 각 지역을 전도하며 그 종착지로 정한 곳이 기타미시. 공창 폐지운동과 자선활동을 펼친 피어슨 부부의 뜻은 기타미시의 정신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진제공-홋카이도 유산 협의회

祭 삿포로 마츠리 北海道神宮例祭

삿포로시민은 물론 홋카이도민의 정신적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홋카이도 신궁에 모셔진 4신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매년 6월 14일-16일, 3일간에 걸쳐 삿포로 마츠리가 개최됩니다. 첫째날은 예제일 전야행사가, 둘째날은 신전에 봉납을 하는 예제가, 마지막날은 삿포로 시내에 미코시(신위를 실은 가마) 행렬이 이어집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에는 나카지마 공원에 먹거리를 파는 다양한 노점상들이 늘어서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오도리 공원을 지나고 있는 미코시(神輿) 행렬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길 양 옆에 늘어서서 모습.



예제 당일 홋카이도 신궁 본전에서 이루어진 봉납행사 중 하나였던 일본 검도 무술의 모습.

- 홋카이도 신궁의 제신
- ▶ 오쿠니타마노카미(大國魂神) 홋카이도 대지를 지켜주는 신
 - ▶ 오나무치노카미(大那牟遲神) 홋카이도의 번영과 생활의 향상, 산업의 발전을 지켜주는 신
 - ▶ 스쿠나히토나노카미(少彦名神) 의사와 의약, 주조를 도와주는 신
 - ▶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근대 일본의 기틀을 마련한 제 122대 천황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 +81-11-204-5114 FAX : +81-11-232-4303)